

호서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2013-2차 회의록

I. 회의일시: 2013년 1월 22일 16:00

II. 회의장소: 아산캠퍼스 본관 2층 대학평의회 회의실

III. 참석자: 위원정수 9명 중 참석위원 9명

IV. 안건사항: 2012학년도 등록금책정관련 논의

V. 회의내용

A 위원장: 지난번 심의위원회에 이어 오늘 2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배포된 회의자료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간사 : ('13학년도 등록금 책정 동향, 국가장학금 지원계획, 등록금 책정인상 요소 및 인하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다.)

A 위원장: 등록금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12년의 자체노력 규모 이상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에서는 '13년도 등록금 책정에 있어서 동결안을 제안합니다. 학부와 대학원의 등록금 동결안 세부계획을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간사 : 먼저 첨부된 지역대학 계열별 등록금 현황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년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기로 하되 타대학 평균의 89.5%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보건계열 등록금은 '13년도 실습장 구축 및 실습비 확대 필요성에 따라 5% 인상기로 하며, 항공서비스학과의 경우 학과의 건의 및 타대학의 일반적인 사례를 반영하여 실습비 명목으로 등록금에 포함했던 기업연수비 및 제복비를 별도부과에 따라 등록금은 전년대비 4.19% 인하하고자 합니다. 학과별 차등인상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해 인문사회계열 등록금은 0.5%~1% 인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간사: 참고로 '13학년도 장학금 예산을 20억 추가 편성하였고 1인당 장학금을 반영한 실질등록금을 산정하면 전년대비 4.5%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등록금 동

결 및 인하로 인한 세입부족액은 건축 및 연구적립금으로 충당하며 경상비를 최대한 축소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 계획입니다.

A 위원장: 정부의 국가장학금 정책에 따라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장학금 확충 노력 시 국가장학금 II유형으로 40억 정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 위원장: 등록금 책정에 있어서 교육비 투자가 많은 전공은 인상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전공은 인하함으로써 평균등록금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간호학과와 물리치료학과는 지역대학 평균등록금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므로 연차별 인상 계획에 따라 '13학년도에는 5% 인상하며,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항공서비스 학과를 제외한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은 동결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계수조정을 위한 계열별 등록금 조정은 기획예산팀에 위임해주시는 학교 측 안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B 위원: 평균등록금 산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회 간사: 계열별 등록금에 학과별 입학정원을 곱하여 산출된 총 등록금 수입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으로 나누면 대학의 평균등록금이 산출됩니다.

B 위원: 지역대학의 계열별 등록금 비교 자료를 보면 지역 대학의 평균등록금 보다 모든 계열이 낮지만 계열간 비교하면 인문사회계열보다는 공학 및 예능계열의 등록금이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등록금 인하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계열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적으로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D 위원: 예체능계열과 공학계열은 실험실습 공간 및 실습비 등을 고려할 때 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향 받지 않는 인문사회계열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E 위원: 예산서 검토해보니 인건비항목에 교원, 직원 법정부담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 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을 말하는 것이지요?

위원회 간사: 네 맞습니다. 2012년도 개정된 사학연금법에 따르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은 학교부담 시 교과부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작년 초에 2012년도 3월~2015년 2월까지 3년간 교과부 승인을 받았고 승인 결과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법정부담금을 2013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D 위원: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법인에서도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통하

여 법인회계에서 자체 부담할 수 있도록 자체노력을 요청하였습니다.

B 위원: 국가장학금 이외 동결 하지 않을 경우 가져오는 손실은 얼마나 됩니까?

위원회 간사: 교과부 구조개혁 정책으로 매년 평가하는 재정지원제한 및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선정 평가, 기타 재정지원사업 선정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A 위원: 우리 대학의 경우 각종 정부재정지원 사업으로 국가장학금 제외 100억이상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교과부 평가 지표 중 하나가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지수로 등록금 인상할 경우 신규 사업 수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C 위원: 만약 5% 인상한다면 대략 연35만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 납부하는 것인데 학생 위원님들 등록금 부담 체감하시는지요?

G 위원: 크게 체감하진 못하겠지만 등록금이 인상되었다고 해서 교육환경이나 서비스가 개선되었다는 직접적인 변화 또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F 위원: 당장 눈앞의 현실로 인해 미래 학교발전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D 위원: 10년 전 학교 다녔던 선배들이 오랜만에 학교를 방문하면 내외형적으로 발전한 모교를 보며 감탄하곤 합니다. 현재 장영실관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의 재학생들 역시 졸업 후 학교를 방문하면 그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C 위원: 과거 선배들의 등록금으로 적립한 적립액을 현재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배들의 기여가 현재의 발전을 이루었고 지금 여러분의 기여는 미래의 후배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선순환의 차원에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모교 발전의 긍정적 측면도 고려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 위원: C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그런 대학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 동결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료를 통해 제시한 학교 측의 등록금 책정 안에 동의합니다.

F 위원: E 위원의 의견에 재청합니다.

A 위원장: 두 위원의 동의 및 재정을 받아 2013학년도 등록금책정 위원회 안으로

학부 및 대학원의 등록금을 동결하되, 학부 항공서비스학과 4.19% 인하, 간호학과 및 물리치료학과는 5%인상하고 향후 학교 측에서 계열별 특성을 고려하여 계열별 등록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위 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상기 기재사항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12년 1월 22일